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추진

탄소융합기술원, 2020년 산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 최종 선정 내년부터 85억원 사업비 투입 빨리 구축사업 구축 장비 22종 업그레이드

전주시가 정부지원을 받아 탄소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최첨단 장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기술원이 제안한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원은 내년부터 국비 60억원 등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탄소밸리 구축사업으로 구축된 장비 중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장비 22종을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원은 △제품 설계 해석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국

내외 사업화 지원 등 기술 지원으로 지역 탄소기업의 제품 사업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과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탄소기업들을 돕게 된다. KIST 전북

분원은 소재 분석·물성평가 등을 지원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국내외 인증획득, 수출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원은 3개 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사업화·관료개척까지 전주기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원은 최근 친환경 수송기기·항공·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탄소복합재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탄소

기업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거나 사업화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탄소융복합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운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으로 탄소기업 제품의 사업화를 이끌어 내 탄소시장의 확대 및 탄소융복합 소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경찰관 폭행 도주 50대 검거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을 등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모(50)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김제경찰서 민원실에 있던 B경위를 등기로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실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지택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낮에는 '경영' 밤에는 '상생'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들 '야밤토크' 개최

나눔과 상생의 경제모델인 전주시 사회적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주시는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지역에서 활동중인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전주시 사회적경제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야밤토크'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공동체, 도시재생을 통합해 국 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반인 공동체와 도시재생이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왔다.

이날 참석한 고은하 전주지역활성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다"며, "공동체가 전주에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시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온전히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단 및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도시혁신센터와 전주사회혁신센터를 양대축으로 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사회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00여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만경강유역협의회와 합동점행사가 13일 전주시 화전동 화전지구 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원주군수, 박준배 김제시장, 김철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참석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만경강을 따라 이동하며 친수시설 등을 합동점검했다.

조직 탈퇴하려는 후배 폭행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들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에서 B모(당시 18)군 등 2명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등기로 이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폭력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씨는 뒤늦게 조직에 들어온 B군 등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등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훈 기자

행인 폭행 조폭 구속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조폭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모(2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3시 40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광장에서 B모(19)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길을 걷던 B씨가 자신과 부딪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력 등 전과 22번으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

"다시 청소년이다"

전주시청소년시설연합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전주시는 지난 11일 전주중앙삼림광장에서 청소년,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전주시청소년시설연합이 공동주관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다시 청소년이다'(항거: 항상, 거기, 청소년이야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시 효자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면, 청소년의 달 5일을 맞아 '청소년 참여'를 주제로 전주시 10개 청소년 시설이 연합해 청소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발휘하고 건전하고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사를 비롯해 청소년현장 및 독립선언문 낭독, 청소년 참여 기구 소개, 우수 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식 등의 식전행사와 흑백 사진관, 추억의 옛날과지(태극기 그리기, 머그컵 프린팅, 미래의 나에게 엽서쓰기, 성 고정관념 격파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 색소폰(플룻)주, 방 송댄스, 수화, 난타 등 청소년들의 문화공연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과 지역주민, 영화계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송효철 기자



전주한옥마을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전통한옥 창살을 형상화한 빗살무늬로 도색되고 화단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차공간으로 탈바꿈됐다.

한옥마을 건물식 공영주차장 새단장

전주한옥마을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전통한옥 창살을 형상화한 빗살무늬로 도색되고 화단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차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100만 여행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옥마을 건물식 공영주차장의 옥상방수포장 및 주차라인 재구획 등 보수공사 등 새단장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한옥마을에 인접한 건물식 공영주차장은 지난 2013년 준공된 이후 여행객들에게 175명의 주차공간을 제공했으나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옥상층 주차면 바닥 도막재가 탈락되고 그에 따라 누수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총 2억원을 투입해 훼손된 도막재 바닥재와 경계석 등을 전체 철거하고 방수보강한 후 재포장했다. 또, 주차면은 한옥 창살을 형상화한 빗살무늬 디자인으로 도색하고 가장자리 여유 공간에는 외면 쌓기로 치장한 화단을 설치해 반송, 철쭉, 남천, 회양목, 측백, 능소화, 꽃잔디 등을 심었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여행하기 좋은 여행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전경을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고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한옥마을 내 건물식 주차장 보수공사로 인해 전주한옥마을 여행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월부터 대성공영 주차장(636면)을 이용해줄 것을 적극 홍보·안내해왔다. /송효철 기자

만취 채무자 현금 흠치다 벌미

만취한 채무자를 상대로 주머니에서 현금을 훔친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술집에서 B모(64)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현금 2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채무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강석훈 기자

책과 사람, 삶... 전주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 직은도서관, 생활SOC 조성 등 정부공모·시 자체공모 활성화 토대 마련 '문화가 있는 날'·'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3억9000여만원 추가예산 확보

전주시가 시민들의 마을사랑방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전주시민들의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들이 올해 정부공모사업과 시 자체공모사업 등에 선정돼 마을공동체 및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은도서관 특화 사업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지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조성·운영중인 28개 공립작은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 18개 작은도서관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억9000여 만원을 지원받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간담대·책마루 부작은도서관의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꿈다락·금호작은도서관의 '은두레 공동체 사업' △초록우산작은도서관의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중산·우이문화의 집·초록우산작은어린이집의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꿈이있는나

무·덕진동·인후문화의집작은도서관의 '2019년 책친구' △모퉁이작은도서관의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큰나무·인후비전작은도서관의 '모퉁이작은도서관' △인후문화의집작은도서관의 '신나는 예술여행사업' △행복나눔작은도서관의 신나는 예술여행사업 등이다.

이로써, 28개 공립작은도서관은 서로 협력해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각 도서관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함께하는 사업으로는 공립작은도서관협의회 주관으로 이달부터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한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전주 올해의 책' 사업을 전개한다. 참여한 가족에게는 독서대전 체험권 제공과 대출권수 확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지역 작가를 알리고 주민들이 작가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인의 서재' 사업도 눈에 띄어 불만이다. 이 사업은 7개 작은도서관과 7명의 시인이 각각 결연해 지난 달부터 열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시인이 좋아하는 책, 추천도서, 시인의 인생 멘토 책 등을 각 도서관에 전시하고 작가가 직접 어린 아이 등 동네주민과 함께 얘기하고 글 쓰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로 운영된다.

숲속에 조성된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에서는 '함께 그린(Green)숲 사업'을 만날 수 있다. 지난 2013년 5월 문을 연 건지산 숲속작은도서관은 개관 이후 건지산을 찾는 시민들이 독서를 즐기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꾸준히 이용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생태세밀화 그리기 △나무토막그림 울타리 꾸미기 △숲과 생태체험 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개방하고 다양한 지역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지역으로 나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작은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만나 서로 배우며 함께 나누는 마을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청, 음주운전 집중단속

19일까지 실시

전북경찰청이 불쾌한 날씨를 맞아 주요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전북경찰청은 집중단속을 통해 최근 전국 고속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국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지난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에서 택시차량이 음주주정 승용차량과 운전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9일 중부고속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운전 승용차량이 고속도로 공사장의 인부 등을 충격해 숨지게 한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음주집중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시간과 심야시간 등 단속시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실시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고속도로 내 주요 톨게이트, 휴게소, 임시주차장, 졸음쉼터 등 단속장소에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올해 연초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9지구대 관내에서만 현재까지 130여건이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어 운전자의 의식개선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